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목장교회 나눔지

얼음 깨기

먼지 쌓인 피아노

10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 – 역대하 20장 20절
여호시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라 하고

교회행사

어느 교회 예배당 한쪽 구석에 오래된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한때 찬양팀이 열정적으로 사용하던 피아노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예배의 열심이 식고 그 피아노는 덮개가 씌워진 채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그 피아노를 발견했습니다. 덮개를 걷어보니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고, 건반은 눌리지 않을 만큼 굳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것을 깨끗이 닦고, 조율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아노가 다시 예배당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소리, 너무 오랜만이에요” 예배의 감격이 다시 교회 안에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먼지 쌓인 피아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닦아내고, 다시 울리게 하시려는 분”이십니다.

[나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먼지 쌓인 피아노’처럼 방치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어떤 걸까요?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경배 찬양

꽃들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 소리 넘쳐나리라

그 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후렴)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온혜의 주 온혜의 주 온혜의 주

소식

1. 세례 / 입교 / 학습

11월 2일(주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청장년: 세례/입교/학습] 1회차: 10/23(목) 저녁 7시 30분 2회차: 10/30(목) 저녁 7시 30분
[청소년: 세례/입교/학습] 1회차: 10/25(토) 오후3시 2회차: 11/1(토) 오후 3시

[유아 세례] 교육&문답 11/1(토) 오후 3시 *문답식은 11월 1일(토) 오후5시부터 세례식 참석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2. 유학생을 위한 가을, 겨울옷 모집

네팔과 스리랑카 등 더운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 한국의 가을과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옷을 기부 받고 있습니다. (가을옷, 겨울옷, 신발, 목도리, 장갑 등)

10월

6~9일	추석 연휴
12~15일	기을 사경회
18일	더비기닝 선교학교 개강
19일	사역박람회 (3주간)
22일	필그림/ 멘쿠버한인합창단 찬양예배
23일/25일	1차 세례 교육
25일	신중년 애유회/교사컨퍼런스
30일/11월1일	2차 세례교육

11월

1일	문답식/굿윌센터 애유회
2일	세례식
9일	성찬식/더가족세미나 개강
16일	추수감사주일
19일	마하나임/트리니티 중창단
29일	더비기닝 선교학교 수료식

선교

[정동준 선교사]

1. 시작되는 RTC 기을학기에 직원, 학생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2.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매일의 삶을 사는 선교사가 되도록.
3. 온가족이 건강하여 밟겨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4. 박사과정 등록금이 잘 마련되어 어려움 없이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문장 큰 울림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걸음은
마음의 청소이다”

-A.W. 토저-

**[역대하 29:10] 이제 내가 마음에 결심하여 여호와와 언약을 세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리라 하였노니**

역대하 29장부터 32장은 히스기야 왕의 통치 기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는 열왕기 18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과 대체로 유사합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는 바벨론으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 중요한 영적 교훈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역대기 저자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한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개혁을 추진하는 역동적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지키는 감격적인 순간에도, 예상치 못한 국가적 위기에 적면한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리고 개인적인 생사의 기로에 선 순간에도, 히스기야는 변함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1. 닫혔던 성전 문을 다시 열라

히스기야의 개혁은 그가 왕위에 오른 첫해 첫 달에 성전 문을 여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행사나 형식적인 의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닫아버렸던 성전 문을 다시 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결단의 표현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고, 그곳이 닫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화하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하며, 제사 제도를 회복했습니다. 이후 그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미 멀망한 북이스라엘 지역에까지 사자들을 보내 유월절을 함께 지키자고 초청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절기를 회복하는 차원을 넘어, 분열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영적 비전의 표현이었습니다.

[나눔] 내 삶에서 하나님께 닫아두었던 영역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히스기야가 성전 문을 연 것처럼, 그 문을 여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첫 걸음은 무엇일까요?

2. 뚝심있는 성전 정화 명령

히스기야가 성전 문을 열어놓고 개혁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뚝심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뚝심은 무모한 열정이나 맹목적인 고집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은혜의 징표입니다. 처음 결단했던 그 신앙의 자세를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것, 시작했던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뚝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열정적입니다. 성전 문을 활짝 여는 것처럼 결단하고 현신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이 식어가고, 처음의 결단이 흐려지며, 순종이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보다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뚝심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뚝심은 하나님께 대한 최우선, 최고의 순종을 마다 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순간적인 감격이나 일시적인 열정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일관된 순종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표지입니다.

[나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의 열정과 결단이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진 경험이 있나요? 그럴 때 어떻게 다시 처음의 순종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3. 뚝심있게 공동체가 순종하다

이러한 신앙의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거울이 없습니다.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삶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 모여든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사연과 배경이 다르고, 처한 환경도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리하게 “등록하세요” “이것 저것 나오세요”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신앙을 방치하거나 무관심한 것은 아닙니다.

목장 모임과 같은 소그룹 공동체는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에게서 배우며, 함께 성장합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다른 성도들의 삶을 통해 비춰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간증을 듣고, 그들의 순종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봐야겠다”는 믿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공동체는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순종의 결음을 공동체가 함께 해주기 때문에 한 걸음씩 뗄 수 있게 됩니다.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고, 지쳤을 때 격려해주며, 방향을 잃었을 때 바른 길을 가리켜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닫혀 있는 문이 있다면 히스기야처럼 그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나중에”라는 말로 미루지 말고 즉시 순종하며, 그 순종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뚝심이 필요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며,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나눔] 신앙의 여정에서 공동체로부터 받았던 도움이나 격려의 경험에 있나요?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신앙의 거울이 되어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